

자연보호운동에 있어서 國立公園이 갖
비중은 대단한 것이다.

국립공원이야 말로 그 나라 자연경관의 표
일 뿐만 아니라 자연자체의 총화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3個의 國立公園과 11個의
立公園이 있고 市道單位로 直接 管理하고 있
도시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등이 있으나 그
에서도 국도립공원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
아름다운 名山들이며 매우 특색있는 동식물
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들 국도립공원은 자연보호운동의 핵

심이 되어야 하겠고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
며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자연보호의 교육
장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훌륭한 자연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자연보호
운동은 그간에 새마을운동에서 배운 신념과 의
지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줄기 차
게 자연보호정신을 심어 나감으로서 우리의 금
수강산을 아름답고 등성하고 활기차게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노력하
므로서 우리민족의 또 하나의 정신혁명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하겠다.

山岳保護運動의 理念과方向

韓國山岳會 學術調查 委員長 崔 榮 典

우리나라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산이다. 산이 있기에 골이 있고 골을따라
은 시냇물이 흐르며 그 물줄기를 따라 평야
형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대자연 타로 그것
모체가 산일찌때 우리는 산에서 많은 것을
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산악을 얼마나 사랑
느냐 아니면 학대했느냐를 골똘히 생각지 않
지냈는지 사실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먼 옛
신라때는 화랑들이 각각 나무 한그루씩을
어 산을 가꾼 寒松 의 기록 즉 “金闌境有
松亭 昔西仙所遊 其徒三千 各種一株至今 蒼併
”이라고 破間集 에 기록되고 있으며 고려에
(磨宗) 때는 때없이 사냥질 하고 농부들이 화
을 갈아 생물들을 태워서 제철따라 만물이 자
고 생육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어 천지의 조화
깨치는 일을 일절 금하고 여기는 자는 벌주
록 하여 자연을 보호했었다. 이조에 와서는
조실록이나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식수의 권장
이의 감독사찰의 강화를 알수 있으며 심지어
명으로 封禁區域을 지정하여 지금의 입산금지

처럼 하여 보호한적도 있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체의 남벌수탈이나 6.25 의
전란탓으로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황폐해진 산의
모습을 외면하려 든다. 눈을 들어 산을 바로 직
시해 보자. 국토의 모체인 산을 진실로 내몸처
럼 생각해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벌
거벗은 창피한 꼴을 그대로 두지는 못했을 것이
며 또 벗기지도 못할 것이다. 가령 내몸이 만
인앞에 벌거숭이로 내동댕이쳐 졌다고 한다면 아
마도 누구나 그 수치를 감추려 애써 옷을 입었
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몸체에
과연 그 벌거숭이 몸에 수치를 감추려 얼마나
열심히 옷을 입었나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산악의 황폐를 등산인들에게 돌리는 줄
릴함을 가끔 통분히 여기는 한사람으로서 이 기
회에 산악보호운동의 이념과 방향이라는 주어진
주제로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하고 싶었던 말
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산악인이
펼치고 있는 산악운동과 범국민적인 산악보호
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근년에 갑자기 자연보호의 소리가 높여이쳐

지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려 새롭게 인식되고 생활화로 정착할 단계에 접어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만시지탄이 없지 않다.

자연 파괴는 인간생존을 위협하여 자멸을 초래함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공업 발달에 수반되는 도시공해로 인한 자연 파괴 같은 피부에 즉각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는 산악의 황폐화는 강 건너 불 정도로 인식되기 쉽다. 다만, 누구나 산악 보호는 홍수와 한발 을 조절하는 큰 지렛대임을 알면서도 우선 내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 큰 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악보호운동이라면 산의 어떤 상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추駁相박사는 자연보호 세미나에서 “인간이 생겨나면서부터 조물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무엇이냐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山水自然이라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소중한 재산은 그 진가를 아는 사람만이 소중히 할 줄 아는 것이다. 가령 돼지에게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던져 주었다면 돼지는 먹지 못할 돌일수 밖에 없어 아무 소용에 달지 않아 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값어치를 아는 인간은 때로는 목숨을 내어걸고 밀수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같이 산악은 산이 좋아 산이 거기 있기에 오른다는 산악인에 의해서는 결코 가꾸어질지언정 상함을 당하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산악인도 옛날의 순수한 참산을 사랑하는 기초교양을 갖춘 사람만이 찾던 사람만이 찾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많은 도시 인구가 단 하루만이라도 공해 지역을 도피하려는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 바뀐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산악회가 벌린 下山길의 빈 룩색 없애기운동 즉 버려진 휴지나 빈병 등 산의 미관을 훼손할 오염물들을 주워 담아서 내려오는 운동을 몇년전부터 전개하여 체질순성화 시켰음을 감히 발휘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 산악인들이 과연 산악의 자연에 취하여 탐험의 산이 오르면서 산의 나무나 꽃을 일부로 꺾고 베고 자르는 따위의 물지각한 훼손

행위는 절대로 그들의 愛山心이 허락치 않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음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산악보호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하는 원점으로 되돌려, 저 알프스산 밑에 사는 스위스나 프랑스 사람들처럼 국민학교의 교육에서 자연이 바로 내 생명선이요,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르쳐 소중히 할 줄 아는 정신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황폐화된 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손으로 오손시켰고 황폐케했고 산을 부끄러운 꼴로 만든 장본인들을 생각할때 다시금 반성하고 재검토하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면서 그것을 보존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산은 자원확보만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산이 갖는 기능 즉 수자원의 확보나 재해방지라는 공익성을 근거로 하는 것과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도 포함시켜 보호는 절대적이어야 한다.

지금 지극히 일부 지역에 입산금지로서 산악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 조치는 마땅히 환영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인위가 가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만해도 비무장지대처럼 자연생태계의 싸이클에 의해 꽃피고 열매맺고 썩나 바람에 그씨를 운반시켜 번성케해 주므로 인위적인 피해는 기상적인 피해를 앞서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재 국토개발이나 관광지개발같은 국가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공인된 자연파괴는 소망스러운가 생각해볼 문제다. 다행히 비행기를 타보면 자주당정권때의 우리나라 벌거숭이 산을 본 사람이면 오늘의 파랗게 옷입어가는 산을 보고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하면된다는 의지 바로 그것이 오늘을 있게 했듯이 미래의 생활을 개척하는 자는 미래의 국토의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연의 파괴를 최소한으로 머물게 하는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발이란 자연에서 서트는 이용가치를 고집어 내는 것인만큼

자연법칙을 무시하고서는 성공할 수 없었던 다른 나라의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자연에는 아직 얼마든지 미지의 법칙이나 새로운 이용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으므로 서둘러 말고 보호책부터 강구된 파괴나 개발이 있어야 할 줄 안다.

외국의 예를 들면 관광도로를 개선할 때 사전에 계획선 주위의 나무를 간벌하고 가지치기로 해서 도로건설후의 차의 질주로 생기는 강풍에 나무들이 넘어지는 것이 생길것을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그 나무의 도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도복은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자. 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이라는 미명아래 개발이 추진되어 산허리를 잘라 관광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또 했다. 이 관광도로가 반드시 그렇게 산 깊숙이 까지 있어야 하는지 의아해질 때가 많다. 산악은 도보로 자연을 즐기며 오르는 데 산을 찾는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지 구태여 탐고 깨끗한 산악지대까지 먼지와 매연을 날리면서 승용차가 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구태여 편하게 자연에 취하려 한다면 도시근교의 위락시설이 얼마든지 있기에 적어도 산을 찾는다면 산 앞에 걸터앉은 자세부터 갖추어야 참산을 애질줄 아는 매너도 생기는 법이다. 대개는 이런 거들먹거리느 부류가 산악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장본인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도로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의 산악공원 입구에서 끝나주는 것이 산의 오손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또 도로건설은 산을 절개하므로 식물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며 포장도로의 경우는 몰라도 비포장도로인 경우에서 차량이 날리는 흙먼지는 식물의 생육에도 큰 지장을 주어 조기낙엽 조기달풍이 드는 등 기현상을 일으켜 산의 균형을 깨치고 또 절개후 노면과 植生帶를 완전히 연결시켜 복구하지 않고 裸地가 늘려지는 것이 현 우리나라 국립공원 도로변의 실정인데 이 裸地는 토사유출의 원인이 되어 그것은 한해 여름을 지나

는 동안 막대한 불이로 확대되어 큰피해를 가져오게 우리를 원주의 산사태로 실감있게 체험한 사례다. 산이란 모두가 비탈이므로 좁은 절개랄지라도 소나기를 만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맺기 때문에 산악의 관광도로는 너무 깊숙히 진입하지 않는 것이 산악보호의 첩경이 된다. 또 도로 건설이 불가피할 때는 도로면과 산악식생대를 완전히 연결시키도록 도로건설업자에게 의무지우는 자연보수의 녹지공사도 아울러 포함시켜야 할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어 대개는 여기에 빨리 자라는 목초를 도입하여 녹화하는 페턴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공사는 하자를 두면서 식생대의 복구를 무시하는 따위는 산악보호의 저해요소임으로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포장도로나 차량통행도로의 깊숙한 건설은 많은 인구의 집결을 유발하고 있다. 한라산의 예를 보자. 횡단도로의 건설로 뽕밭쪽재의 운집인원이 종래의 길이 험하든 때의 배가넘는다는 것만 보아도 쉽게 이해된다. 이 많은 등산자의 운집은 무교양한 일부 이용객 부주의로 큰 산불을 초래한 예가 적지않다. 10년이나 아니 수십년간 가꾼 귀중한 자원들이 하루 아침에 재와 연기로 변해 버리는 이런 실수는 결국 물지각한 등산인의 소치이므로 관광이란 명목의 산에의 초대는 결코 좋은 결과만 가져다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외국의 예를 들어 참고로 삼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줄 안다. 미국의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원시림지대에는 자동차를 금단(禁斷)하고 있고 스위스의 국립공원은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을 가진 자 외에는 전면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 넓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광객을 2.5%만 늘리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들은 캐나다의 자연은 캐나다주민의 자손을 위하여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깨달는 바가 있어야 할 줄 안다.

또 안내관이 나무에 직접 못질해 있는 것도 가끔 보는데 사람이 살에 가시가 박히면 야과 견디지 못하면 사 스키배어 호소하지 않는다고

나무를 이처럼 확대해도 좋은지 이런것 역시 반성하여 적은 것에서부터 시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불만해도 그렇다. 만약 담배꽂초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면 아마 몰라도 한사람도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에 버릴때는 불을 끄지 않고 함부로 내던진다. 산을 내 몸처럼 여겨지지 않는에서 비롯되는 소치다. 그 적은 불씨는 큰산을 불태우는 불씨가 됨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몸이 불타는 아픔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담배불은 절대로 없앨 수도 있는 것이다.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것에도 충성한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보면서 우리는 이것쯤이야 또는 나하나 들이야 하는 잘못된 관념을 시정하여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할 줄 안다.

일본의 어느 수상이 독일에 갔을때 공원의 나무가지에 잎이 너무 아름다워서 무심코 훔쳤더니 옆에 있던 한소년이 구짖어 말하기를 이 벚루린에 인구가 몇백만이 있는데 모두당신처럼 나무 잎을 훔쳤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힐란하여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회고담을 적고 어린이들에 국민도의 교욱이 철저함을 부러워하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산불기사를 대 할때마다 이 글이 생각키운다.

산악지대의 화전민철거는 참으로 잘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농업국이면서도 농경지가 전국토의 22.7% 밖에 안되어 경사가 완만한 야산은 석양증산을 위해 개간이 불가피 했으나 여기에 경작하는 작물만은 적어도 유실수나 차밭·약초 같은 비교적 산의 생태의 연장일수 있어 일탄 농작물처럼 수확후의 나지가 생기지 않는 작목으로 경작할때 해빙기의 피해를 줄이고 산의 생태를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의 예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불때 산악은 산악인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밭에 사는 직접 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산을보호함에도불구하고 그들은 산을 차원 높은 의미에서보다 우선 땀감을 공급해 주는 열로 화절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들근한다.

열료림 조성이 지정시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은 야산지대의 일이고 오지에 등산가보면 이것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흔히 본다. 고사목이나 지엽이 아닌 굵은 통나무가 베어져 땀감의 연기로 살아질을 불때 아까운 자원의 낭비와 아울러 자연의 훼손이 가슴을 아프게 할때가 많다. 나는 산악인이면석 또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기에 자연을 남들과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탓 할찌 몰라도 적어도 농민의 수준이 향상되어야만 참 부강이 된다고 본다. 이것은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공지를 갈도록 지도해야 할 줄 안다. K·B·S의 인간승리 T·V 프로그램에서 진도의 경우를 보고 우리나라 농촌 특히 오지의 농촌에 그런 지도자가 학교 넘칠때 농촌의 부강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전전한 정신태양에는 전전한 사회가 이룩되니만치 산악보호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 같은 참으로 부끄러운 운동은 전개하지 않아도 될 줄 믿는다.

이스라엘은 황무지에 무른동산을 만들어낸 자연을 창조한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주셨다. 그것을 지키고 가꾸고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단순한 휴지 즐기나, 휴지나 오물을 안버리는 오염방지운동이 결코 자연보호의 전부는 아닐진데 간혹 이것이 자연보호의 전부인양 오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산악의경관을 해치는 오염을 방지하는 폐기물의 청소도 중요하지만 관광유흥객을 유치하는 관광시설의 감축으로 물지각한 인파의 집결을 억제, 제한 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목전의 이익보다 긴 안목의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로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파괴된 자연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울러 절개지의 복구로서 자연경관을 복원하여 자연과 인위적인 시설물의 잘 조화될 때 산악은 수풀이나 들, 물간이 있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조류등 천연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산이 포용한것들을 아울러 보호하는 모든 산이 포용한것들을 아울러 보호하는 도 의심의 양양이 바로 산악보호운동의 핵심이 될 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